

교회 소식

-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 이번주는 송구영신주일과 교회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6년 새해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2002년 12월 29일부터 질그릇교회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23시 30분, 온라인 예배.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 기도 제목: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우리의 삶과 질그릇교회에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소서.

7. 섬김

	12월 28일	1월 4일	1월 11일	1월 18일
기도	윤치선 집사	정해철 집사	박희종 집사	윤치선 집사
성경봉독	정용순 집사	김미정 집사	정해철 집사	박희종 집사
식사	김한나	김미정	황성만	정해철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 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복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마지막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질그릇교회
CLAYJARS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December 28, 2025

제23권 52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And the King will answer them,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레 19:18)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or bear a grudge against the sons of your own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2025년 표어: 작은 자의 친구 되어 주는 그리스도인 (마25:40, 레19:18)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송구영신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December 28, 2025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4:15-16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How Could It Be)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h God)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윤치선 집사

Yuxuan Lin, Handel-Messiah

"크게 기뻐하라, 오 시온의 딸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정용순 집사 이사야(Isaiah) 63:7~9

교독-다함께 히브리서(Hebrews) 2:10~18

마태복음(Matthew) 2:13~23, 설교자

"함께 비를 맞으며 여는 소망의 새 아침"

A New Morning of Hope: Walking Together in the Rain

- 황성만 목사

Special Music - **Yuxuan Lin**

-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세례 교인만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봉헌 Offering

성찬 The Lord's Supper

성찬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

Have Thine own way, Lord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현금은 본당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현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정해철 집사

| 다음주 본문 | 김미정 집사 전(Ecclesiastes) 3:1-13, 계(Revelation) 21:1-6
마(Matthew) 25:31-46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이사야(Isaiah) 63:8

8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8 For he said, "Surely they are my people, children who will not deal falsely."
And he became their Savior.

히브리서(Hebrews) 2:11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 For he who sanctifies and those who are sanctified all have one source. That is why he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s,

마태복음(Matthew) 2:15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 이었다

15 and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poken by the prophet,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찾아오는 길

